

한화, 바이오사업에 2055억원 투자

오송공장 2010년 상반기 착공 ... 차세대 신약 항체치료제 원료 생산

한화석유화학이 바이오 사업에 총 20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한화석유화학은 3월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용지를 매입했으며, 6월23일 청원군과 205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2018년까지 오송단지의 3만60000m² 부지에 차세대 신약인 항체치료제 원료 생산공장을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.

한화석유화학은 PVC(Polyvinyl Chloride) 생산에서 출발해 산업용 기초원료, 정밀화학, 신·재생 에너지 분야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6/23>